

학회와 협회간의 산학협동



정 선 부
축산시험장 자금과장

대망의 1988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양계인은 그 어느 해보다도 기대가 부풀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가적 대사인 88서울올림픽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개최되고 또 2월25일에는 16년만에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국 양계산업도 그동안 사육수수면, 사양관리기술면, 경영면, 생산비절감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서는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의 국제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서 일부 국가에 대한 무역흑자가 커짐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개방압력이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뭉개 국내의 각종 축종중 비교적 국제경쟁력이 높은 양계 생산물부터 본격적으로 수입이 개방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여건하에서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살아나가는 길은 외국으로부터 사양관리기구와 사양관리기술을 도입하는데서 탈피하여 우리나라 기후와 환경여건에 알맞는 한국형 계사, 사양



관리기구, 사양관리기술 등을 개발하여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양계업은 직접 경영하는 양계업자가 단독으로는 이와같은 일들을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계업에 관련된 업체가 모여서 대한양계협회가 조직되었고, 이 대한양계협회는 어느 협회보다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 왔으나 양계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획기적인 개발은 양계협회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양계협회에서 한국가금학회의 발족을 강력히 요구하여 1983년 12월19일에 한국가금학회가 창립되었다.

일부에서는 축산에 관련된 학회가 너무 많아 학회공해를 우려하는 여론도 없진 않지만 한국가금학회만은 양계업계 기구인 대한양계협회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산학협동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계업계에서는 지금까지의 한국가금학회의 학술활동이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발전과 산학협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한국가금학회와 대한양계협회가 공

강화됨을 위한 심포지움

0.28

관계 협회. 후원: 한일농원



동주관하여 매년 2월에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건실한 발전에 꼭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왔고, 그 심포지움에 참석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직접 양계를 경영하는 양계산업쪽의 인사들로 구성된 집과 해가 거듭될수록 심포지움 참석인원이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도 양계업계가 한국가금학회의 학술활동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가를 알 수 있다.

한국가금학회와 대한양계협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심포지움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있어도 참석자가 매년 크게 증가되는 것은 심포지움의 내용이 양계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타축종의 축산업보다는 학회와 업계간의 산학협동여지가 많으며 또 산학협동이 이루어져야만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학회와 협회 또는 업계간의 산학협동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닭은 품종의 개량과 사양관리기술, 환경개선 등이 최첨단의 과학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새로운 지식의 도입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별업체에서 닭의 사양관리

와 경영관리외에 새로운 지식의 도입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확보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학회와 업계간의 협력에 의하여 협회에서는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기술상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많은 양계농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고 연구의 규모가 크면서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과제는 국공립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연구토록 하고 그렇지 않고 비교적 소수의 양계농가에 해당되는 과제는 해당농장과 이에 관련된 전문가를 연결시켜서 연구토록 추진해야 하겠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실질적인 산학협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고 그렇게 되기위해서는 업계에서는 보다 탐구적인 자세로 자기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상의 모순을 발굴해야 하며 협회에서는 업계에서 보다 과학적인 사양관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계몽하여서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토록 하고 협회에서는 이들이 제시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계 학회와 협의, 분야별로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토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학회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로 새로운 지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키워나가면서 언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문적인 발전이 크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만약 학회와 협회간의 상기와 같은 산학협동체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양계생산물의 생산원가가 많이 절감되어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양계산업에 필요한 부존자원이 전연 없는 우리나라도 가까운 장래에 화란과 같은 양계선진국이 되어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종계를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것 뿐아니라 양계주산물인 계란과 닭고기를 외국에 수출하는 양계선진국으로 부상될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새해부터는 학회와 협회 그리고 업계가 일체 단결하여 양계산업에서의 산학협동체제를 공고히 하여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다같이 다짐하고자 한다. **양계**